브라질 리우 경찰에 의한 사망자 역대 최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치안 불안 상황이 계속되면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가 개입해 강도 높은 '범죄와 전쟁' 을 벌이면서 경찰에 의한 사망자가 역대 최대 수준에 달했으며, 경찰관 사망자도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 리우 빈민가에서 총격전이 벌어지자 군 장갑차가 출동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다.

20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리우 주 정부 산하 공공안전연구소(ISP)는 18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1~11월 각종 사건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사망자가 1천44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리우 주 정부가 치안 불안 해결 방안의 하나로 주요 빈민가에 경찰평화유지대(UPP)라는 초소를 설치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래 16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올해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상자로 기록된 2007년의 1천330명을 이미 넘어선 것이며, 현재 추세라면 올해 사망자는 1천5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리우의 치안 상황은 주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태다.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리우에 군병력을 투입하고 치안 책임자로 현역 군 장성을 임명했다. 군은 경찰과 함께 리우 시내 빈민가를 중심으로 300여 차례 작전을 벌이는 등 범죄조직 퇴치에 주력해 왔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으며, 범죄조직원들과 총격전으로 군인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군병력은 올해 말까지만 활동하고 철수할 예정이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당선인도 군병력 활동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치안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군병력이 빠져나가면 재앙적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 리우 주민의 72%가 군병력 주둔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난민촌 실태 처참

프랑스 내 불법 난민촌들의 보건·인권 환경이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에 인권 보호 대책을 조언하는 인권 옴부즈맨인 자크 투봉 전 법무장관은 전날 발표한 난민촌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칼레, 그랑드생트 등 대서양 연안과 수도 파리의 불법 난민촌들이 "먹고 마시고 씻는 생리적 요구조차 충족하기 힘든 심각한 환경에 내몰려 있다." 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불법 난민촌에서 기거하는 난민들의 심신의 건강이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처참한 수준" 이라면서 부모도 없는 미성년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투봉 전 장관은 특히 "2016년 이후 프랑스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난민촌 철거 이후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 면서 "정부가 난민과 불법체류자들에게 유효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주기적으로 불법 난민촌을 철거하는 것은 이들의 심각한 사정에 의도적으로 눈을 감겠다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16년 10월 영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대서양 연안의 항구도시 칼레의 불법 난민촌을 대대적으로 철거하는 등 전국에서 주기적으로 불법 난민 캠프들을 강제로 철거하고 있다.

한때 1만 명 가까운 난민이 기거했던 칼레 난민촌은 생활·보건 환경이 열악하기로 악명높아 '정글' 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당국이 '정글' 을 전격 철거한 이후 갈 곳 없는 난민들은 수도 파리로 몰려들어 파리 북부의 생마르탱 운하 주변에는 또다시 대규모 불법 난민촌이 형성되기도 했다.

투봉 전 장관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이민자들을 범법자로 취급하면서 외국인들을 감시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CNN "시리아 주둔 미군 전면 철수 계획"

미국이 시리아 주둔 미군을 전면 철수할 계획이다.

20일 '뉴시스' 가 CNN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오전 트위터에 "내 임기 중 시리아에 주둔해야 하는 단 한가지 이유였던 IS를 우리(미국)가 격퇴했다." 며 철수 계획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평소 해외 주둔 미군 철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CNN은 또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 "조속한 시간 내에 시리아 주둔 미군을 전면 철수시키는 계획을 논의 중" 이라고 보도했다.

미군은 현재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 격퇴를 위해 시리아에 2,000여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온건 반군세력인 시리아민주군(SDF)을 지원하는 특수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SDF은 시리아 동부의 마지막 IS 장악 지역인 하진을 탈환에 성공했다.

그러나 CNN은 미군이 시리아에서는 철수하더라도 이라크 주둔 병력은 유지해 필요시 시리아에 대한 공습력은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는 현재 시리아에 남아있는 IS조직원은 최고 3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를 결정하면서 미국의 대 중동 정책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CNN은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군한 후 이라크에 주둔하면서 시리아 내 IS에 대한 공격을 준비한다고 해도, 전면 철군은 시리아와 러시아, 이란등이 모두 희망했던 일" 이라며 "이는 미국의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 감소를 가져올 것" 이라고 우려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 등도 미국이 시리아에서 전면 철수를 단행할 경우 미국의 장기적 대 중동 및 대 시리아 정책 변화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www.suhlaw.com
info@suhlaw.com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서 & 서 법률사무소

- 가정법 Family Law
  이혼, 양육권/방문권, 입양, 리빙트러스트, 혼전(후) 계약
- 이민법 Immigration Law
  가족/취업이민, 신분변경
  E-2, H1B, L, O visa
- 민사/형사법 Civil/Criminal Law
  민사소송, DUI
- 상법 Business Law
  법인설립, 계약서
- 번역 업무도 가능합니다

STATE BAR OF CALIFORNIA CALIFORNIA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

서자경 변호사
Ja K. Suh, Esq.
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Certified by the State of Bar of CA
Univ. of Missouri-Columbia 법대 (J.D.)
Univ. of Missouri-Columbia 비평론 석사

서자현 변호사
Ja H. Suh, Esq.
California Western 법대 (J.D. Dean's List)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멤버(AILA)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 협회 위원회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 이사역임
오렌지 카운티 회장단 협회 회원 역임

LAW OFFICES OF SUH & SUH A PROFESSIONAL CORPORATION

L.A. & O.C. (714)368-1655
161 Fashion Ln. Suite 111, Tustin, CA 92780

San Diego (858)622-6279
4660 La Jolla Village Dr. #500, San Diego 92122

Vista (760)643-4084
380 South Melrose Dr. #363, Vista, CA 92081